

노년기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성 연구

林淑子・林致瓊

目 次

I. 序論	3. 資料分析
II. 問項의 叙述	V. 結果 및 論義
III. 理論的 背景	1. 標集對象의 一般的 性格
1. 老人の 概念	2. 調査 變因의 點數分布 傾向
2. 老年期와 衣服	3. 衣服行動 變因 相互間의 關係
3. 社會的 不安全感과 衣服行動	4. 社會的 不安全感과 衣服行動과의 關係
IV. 研究 方法	5. 人口學的 變因에 따른 衣服行動
1. 測定道具	VI. 結論 및 提言
2. 標集對象 및 資料收集	

I. 序論

60年代부터 급속한 經濟發展에 따른 社會變動은 人口學的 景況에서 人口轉換過程(demographic transition)과 人口都市化過程(urbanization)의 두 가지 變化를 隨伴했다. 人口學的 變化는 老年人口의 絶對數 增加 및 平均壽命의 延長을 招來하여 老後의 經濟生活, 老年人力의 活用, 老人扶養, 餘暇利用, 醫療保護 등 여러 가지 老人問題를 提起시키는 主原因이 되고 있다.¹⁾

특히 年齡增加에 따른 性比의 뛰어난 減少傾向은 性別人口數의 不均衡 狀態를 招來하여 老年期女性에게 性問題, 婚姻狀態 및 心理的 孤獨 등의 問題를 惹起시킨다.²⁾ 疏外感과 孤獨感을 克服하고 安定感을 追求하는 老人の 心理的 欲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道具인 衣服의 菲요성은 老年層에 있어서도 根本的으로 他年齡層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衣服을 통한 바람직한 印象形成과 肯定的인 自我概念은 積極的인 社會參與와 원만한 對人關係를 유지시켜 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本研究는 老年期 女性의 衣服行動을 社會心理學的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衣服을 통해 그들의 心理狀態를 把握하여 老後의 社會生活을 보다 肯定的이고 積極的으로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社會問題 解決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本研究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衣服滿足度, 社會的 認定性, 心理的 依存性 등의 세 가지 衣服行動 變因들간의 關係를 把握하고, 衣服行動 變因과 社會的 不安全感과의 關係를 把握한다. 둘째, 人口學的 變因(年齡, 階層, 教育, 宗教, 配偶者 有無)에 따른 衣服行動 變因의 차이를 比較 分析한다.

II. 問題의 叙述

1. 仮説 說定

衣服行動 變因 相互間의 關係를 把握하고, 人口學的 變因에 따른 衣服行動 變因의 差異를 比較 分析한다. 이에 대한 零假說을 다음과 같이 說定

1) 尹鍾周(1983), “우리 나라 老人問題에 대한 人口學的 考察,” 「現代社會와 老人福祉」(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pp. 73~77.

2) 앞글, pp. 79~82.

하였다.

假說 1. 衣服行動 變因(衣服滿足度, 社會的 認定性, 心理的 依存性)相互間에는 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假說 2. 社會的 不安感과 衣服行動 變因과는 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假說 3. 衣服滿足度는 人口學的 變因(年齡, 階層, 教育, 配偶者 有無)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假說 4. 社會的 認定性은 人口學的 變因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假說 5. 心理的 依存性은 人口學的 變因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2. 用語의 定義

① 社會的 不安感：對人關係에서 自身의 才能과 能力에 대하여 劣等意識을 느껴 心身의 狀態가 부자연스럽고, 極度로 敏感하며, 恐怖, 근심, 疑心 등으로 不安定하고 自信感이 없는 狀態로 특징지워진다.

② 衣服滿足度：所有하고 있는 衣服의 가지수, 着用方式, 着用用途, 價格, 色相 및 觸感에 대한 滿足感의 程度를 의미한다.

③ 社會的 認定性：集團에의 所屬感이나 他人들로부터 認定感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準據集團과 類似한 衣服을 選擇, 着用하는 行動을 의미한다.

④ 心理的 依存性：衣服을 選擇, 着用함에 있어서 自我에 주는 幸福感, 自信感, 氣分轉換 등의 心理的 效果에 敏感하게 영향받는 行動을 의미한다.

III. 理論的 背景

1. 老人の 概念

老人에 대한 概念은 特定한 社會의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背景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학자에 따라 老人の 理論的 定義도 다양하

다. 그러나 다양한 老人の 概念을 綜合하여 國際老年學 學會의 한 報告書는 老人을 다음과 같이 定義했다.³⁾

老人이란 老齡化의 결과로 ① 環境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 自體組織에 缺陷을 가진 사람 ② 자신을 統合하려는 能력이 減退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③ 人體의 器官, 組織機能에 衰退現象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 생활에 있어서의 適應性이 정신적으로 缺損되어 있는 사람 ⑤ 組織의 豫備能力이 減退하여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다.

어느 社會의 年齡構造에서나 老年層은 生活週期의 最終段階에 있는 年齡集團을 말한다. 그러나 老年期의 年齡基準은 文化圈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동일한 文化圈의 下位集團에 따라서 相異하다.⁴⁾ 우리 社會에서도 老人에 대한 年齡基準이 社會變動에 따라 流動的이었고, 그 年齡基準이 上昇되는 趨勢이다.⁵⁾

本研究에서는 '老人'을 '6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個人'으로 規定하였다.

2. 老年期와 衣服

老年層의 衣服과 관련된 문제는 身體的 側面과 心理的 側面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老年期의 身體的 變化와 衣服

中年期부터 진행되어 온 신체적 변화는 老年期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어서 體型과 外貌가 변화하고, 身體機能이 低下된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老年期 女性들의 衣服選擇과 着用時에 문제가 되며, 衣服에 대한 불만의 요인이 된다.⁶⁾ 따라서 老年期의 신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고안된 衣服이 요구된다.

老人의 일반적 신체 변화에 대하여 Ryan은 "老年期의 外貌의 變化가 신체적 매력을 감소 혹은 증가시킬 수도 있다."⁷⁾고 했다. 이에 관해 Havighurst는 "衣服은 老人の 매력 증진의 合理

3) 崔信德(1982), “平生教育 一還으로서의 老人教育,” 「창립 15 주년 기념 학술발표」(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 61.

4) Y. Talmor(1968), "Aging : Social Aspect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7, p. 186.을 인용한 양준(1984), 「青小年 問題와 老人問題」(서울 : 정음사), p. 51.

5) 앞글, p. 156.

6) Tate and Gilsson(1967), Family Clothing(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p. 344.

7) M. S. Ryan(1966).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p. 307.

的 防禦(rational defense against aging)⁸⁾ 라고 지적하고, “老人의 신중한 衣服選擇은 外的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Bader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老人們은 신체적 변화가 매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식하고 衣服을 통하여 바람직한 印象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⁹⁾

2) 老年期의 心理的 變化와 衣服

老人들은 물질적인 充足 외에 社會的, 心理的 滿足을 추구한다.¹⁰⁾ 心理的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인 衣服의 菩需求는 老人層에서도 근본적으로 他年齡層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衣服에 대한 관심이 크고, 매력적인 外貌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¹¹⁾

身體的인 退化와 자식들의 分家 및 配偶子・親知와의 死別로 인한 社會的 關係의 감소는 老人們을 心理的으로 委縮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衣服을 사용하여 自信感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¹²⁾ 이에 관해 Phipps는 “老人의 衣服에 대한 讚辭는 着用者에게 幸福感과 自我尊重感을 주며, 衣服의 適切한 選擇은 成就感, 自己表現,自制力を 증가시키는 心理治療的 價值가 있다.”고 주장했다.¹³⁾

衣服의 심리적 영향은 老人们的 社會的 參與와도 관계가 있다. Ebeling과 Rosencranz는 老年期 女性을 대상으로 社會參與度와 적절한 衣服의 소유 여부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社會參與度가

낮은 여성일수록 衣服 不滿感(Clothing deprivation)을 자주 느끼며, 衣服 不滿感으로 인하여 사회참여가 저하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¹⁴⁾

3. 衣服 行動

1) 衣服滿足度

Ryan은 “衣服滿足度는 衣服의 特징과 個人的 關心 및 價值觀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低價品 衣服보다는 高價品 衣服에 대한 滿足度가 높다.”¹⁵⁾고 하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에게 어울리고 社會的으로 認定받을 수 있는 衣服에 滿足한다.”고 했다.¹⁶⁾ Drake와 Ford는 「自我受容度와 衣服着用動機의 관계 연구」에서 “自我受容度가 높은 집단은 衣服着用動機가 자신의 만족에 있으며, 自我受容度가 낮은 집단은 他人指向의 衣服態度를 지닌다고 했다.¹⁷⁾

衣服에 대한 滿足은 自我肯定的 態度를 형성시켜 社會活動 參與度를 높인다. Ryan¹⁸⁾은 “衣服은 自信感있는 行動에 영향을 주어 青少年이 자신의 衣服에 대해 만족할 때는 社會的 活動에 積極的으로 참여하고 團體의 一員임을 自覺하지만, 衣服不滿感이 높을 때는 社會的 活動을 거부하고, 團體에 所屬感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태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否定的인 傾向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滿足狀態가 衣服行動에 반영되며, 특별한 이유없이自身

8) M. Ebeling and M. L. Rosencranz(1961), “Social and Personal Aspects of Clothing for Older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3, No. 6, p. 464.

9) I. M. Bader(1963), “An exploratory study of clothing problems and attitudes of a group older women in Iowa City,” *Adding Life to Years*(Iowa : Institute of Gerontology, State University of Iowa), pp. 3~6.을 인용한 M. S. Ryan(1966), p. 316.

10) C. M. Costantakos(1977), “The Family and Ag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9, No. 10, p. 24.

11) L. Bartley and J. Warden(1962), “Clothing Preferences of Women 65 and Older,”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4, No. 8, pp. 716~717.

12) D. G. Smathers and P. E. Horridge(1979), “The effects of Physical changes on clothing preferences of elderly women,”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9, No. 3, p. 273.

13) C. A. Phipps(1977), “Clothing Design for Handicapped Elderly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9, No. 10, p. 21.

14) M. Ebeling and M. L. Rosencranz(1961), pp. 464~465.

15) M. S. Ryan(1966), pp. 151~179.

16) M. S. Miller and M. S. Ryan(1960), “Mothers and Daughters Select School Dresse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2, No. 6, pp. 445~456.

17) F. M. Drake and I. M. Ford(1979),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7, No. 5, pp. 283~291.

18) M. S. Ryan(1966), p. 291.

의 衣服에 불만을 나타내고 否定的인 態度를 취하는 것은 內面的 狀態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自我概念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2) 社會的 認定性

Harms는 “衣服着用動機가 개인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개인의 착용하고 있는 衣服은 그가 속한 集團과 社會의 所屬感을 나타낸다.”¹⁹⁾고 했다. 社會的 承認欲求와 관련된 同調的 行動(Conformity behavior)의 정도는 自信感과 개인이 속한 社會의 規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男子보다는 女子가, 知的 水準이 높은 사람보다는 知的 水準이 낮은 사람이, 肯定的 自我概念을 가진 사람보다는 否定的 自我concept을 가진 사람이 더 同調한다.²⁰⁾

衣服의 社會的 認定性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Hamilton과 Warden²¹⁾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社會的으로 承認된 衣服을 착용한 집단은 社會活動의 參與度가 높고, 所屬集團의 規範에서 離脫된 衣服을 착용한 집단은 同僚들로부터 跖外되었다. Dickens²²⁾의 연구에 의하면 同僚集團과 類似한 衣服을 소유하지 못한 청소년은 衣服不滿感(Clothing deprivation)으로 인하여 社會活動 參與率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衣服不滿感은 全年齡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Davis²³⁾에 의하면 老人們도 同僚集團에 소속 되기를 원하며, 현재의 衣服着用 趨勢에 일치하기

를 원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衣服은 年齡에 관계없이 個人이 원하는 일정한 地位에 도달하고, 그 集團에서 認定받기 위한 道具로 사용된다.

3) 心理的 依存性

衣服에 의한 心理的 영향은 性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서 男性보다는 女性이 크게 나타나며, 心理的으로 不安한 集團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다.²⁴⁾ Silverman²⁵⁾의 衣服에 대한 滿足·不滿足과 行動을 관련시킨 연구에서 外貌에 不滿足하는 集團은 타인을 두려워하고, 嫉惡하며, 自我尊重感이 낮았고, 外貌에 滿足하는 集團은 社交의이고 異性交際도 비교적 많았다. Kelley²⁶⁾는 「衣服과 階層과의 相關關態 研究」에서 外貌가 초라한 青少年은 緊張感과 喪失感을 느끼며, 이러한 心理狀態는 階層이 낮을수록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Ebeling²⁷⁾은 衣服이 社會的·個人的 側面에 영향을 주는 要因들에 관한 연구에서 老年期 女性들은 착용하고 있는 衣服에 따라 社會的 會合에서 心理的 便安함 혹은 不便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衣服은 着用者の 心理狀態에 영향을 주고 어떤 社會的 狀況에 대처했을 때 즐거움이나 士氣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4) 社會的 不安全感과 衣服行動

Creekmore²⁸⁾는 “衣服行動은 착용자의 성격

-
- 19) E. Harms(1938), "The Psychology of Cloth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4, pp. 239~250.
- 20) 高永復(1980), 「現代 社會心理學」(서울 : 법문사), pp. 140~150.
- 21) J. Hamiton and J. Warden(1966), "The students' Role in a High School Community and His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8, No. 10, pp. 789~791.
- 22) D. Dickens(1944), "Social participation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scientific minimum standards in clothing," *Rural Soc.*, Vol. 9, pp. 341~349.를 인용한 M. S. Ryan(1966), p. 125.
- 23) R. W. Davis(1962), "The relationship of social preferability to self-concept in an aged popula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17, pp. 431~436.
- 24) M. F. Drake and I. M. Ford(1979), pp. 283~291.
25. S. Silverman(1945), "Clothing and Appearance, Their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TeenAge Girls," (New York :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 140. 을 인용한 M. S. Ryan(1966), p. 290.
- 26) A. E. Kelley, C. W. Daigle, R. S. Lafleur, and L. J. Wilson(1974),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2, No. 3, pp. 167~175.
- 27) M. Ebeling and M. L. Rosencranz(1961), pp. 464~465.
- 28) A. M. Creekmore(1966),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 783, (Michigan State University)

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Aiken²⁹⁾의 연구에서도 衣服行動과 性格特性과의 有意的 관계가 밝혀졌다. 이에 관하여 Lapitsky³⁰⁾는 “성격의 일면인 社會的 安全感, 不安全感과 衣服價值觀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社會的 不安全感이 높은 집단은 衣服을 社會的 環境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社會的 價值觀이 높고, 安全感이 높은 집단은 衣服을 自己表現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審美的 價值觀이 높다.”고 하였다. Creekmore와 Humphrey, Klassen³¹⁾은 “自己概念의 不安定性(instability)과 不安全感(insecurity)은 유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고, “不安定한 自己概念을 갖고 있는 青少年들은 衣服行動變因 중에서 購買 및 管理에 관심이 크고 自己尊重感을 가진 청소년들은 審美性을 중요시한다.”고 했다. Horn³²⁾은 “個性的인 衣服을 着用하는 사람은 사회나 집단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心理的 安定性이 높으며, 개인적 확신에 대한信念을 지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同調性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國內의 先行研究로 최 혜선은³³⁾ 女高生을 對象으로 衣服行動과 社會的 安全感—不安全感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衣服行動 變因 中 興味性, 社會的 認定性, 心理的 依存性, 禮儀性, 審美性 5개 變因이 社會的 安全感—不安全感과 有意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社會的으로 불안한 사람은 衣服이 자신에게 주는 느낌에 더욱 민감해져서 自身이 衣服을 잘못 입었다고 느끼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행동이 위축된다고 했다. 따라서 社會的 安全感—不安全感과 衣服의 社會的 認定性, 心理性, 依存性, 衣服滿足度와는 相互聯關係이 있다고 推論할 수 있었다.

IV. 研究 方法

1. 測定道具

本研究의 測定道具는 質問紙로서 全體 質問紙는 人口學的 特性을 조사하기 위한 問項과 社會的 不安全感에 관한 問項, 衣服滿足度, 社會的 認定性, 心理的 依存性의 衣服行動에 관한 問項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測定道具의 妥當度와 信賴度를 보완하기 위하여 1984年 9月 23日과 24日兩日에 걸쳐 정각노인대학과 새마을장수대학에 다니는 女子老人 42명에게豫備調查를 실시하여 應答이 자나치게 偏布되어 辨別度가 낮은 問項과 이해하기 곤란했던 問項은修正하여 本調查에 사용하였다.

1) 社會的 不安全感 調查

社會的 不安全感 調査는 Lapitsky(1961)가 작성하였고, Brady(1963), Laubach(1972), 강 혜원(1974), 최 혜선(1981)의 연구에서 사용된 測定道具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測定道具는 25개 問項으로 구성된 真偽型 調査로 표기되어 있는 答과 다르게 答한 問項數를 總問項數에서 빼는 방법으로 點數를 계산한다. 點數가 낮을수록 社會的 安定感이 높은 것으로, 點數가 높을수록 社會的 不安全感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衣服行動 調査

① 衣服滿足度 : 임 춘봉(1974)의 설문지에서 6 問項, 이 경손(1979)의 설문지에서 3 問項을 채택하였고, 3 問項은 本研究를 위하여 작성하여 總 12 問項의 Likert型 5 점 評定尺度로 구성되어 있다. 點數가 높을수록 衣服滿足度가 높다. 先行研究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은 本研究에 적합하도록 語彙를修正, 補完하여 사용하였다.

-
- 29) L. R. Aiken(1963), “The Relationship to Selected Measures of Personality in Undergraduat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9, No. 1, pp. 119 ~ 121.
- 30) M. Lapitsky(1961),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31) C. Humphrey, M. Klaasen, and A. M. Creekmore(1971), “Clothing and Self-Concepts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 Vol. 63, No. 4, pp. 246 ~ 250.
- 32) M. J. Horn(1975), *The Second Skin*, 2nd ed.(Boston : Houghton Mifflin Co.), pp. 175 ~ 178.
- 33) 최 혜선(1981), “衣服行動과 社會的 安全感—不安全感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市內의 女高生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② 社會的 認定性, 心理的 依存性 : Creekmore 의 *Composite Measures of Specified Clothing Variables*에서 사용된 문항을 翻案, 修正하여 사용하였다. 各問項은 5점 評定尺度이며, 社會的 認定性에 관한 10問項, 心理的 依存性에 관한 10問項이다. 各變因別 點數가 높을수록 그 變因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해석된다.

3) 人口統計學的 特性 調查 年齡, 생활정도, 教育 數準, 宗教, 配偶者 有無에 관해 各 1問項이다.

2. 標集對象 및 資料收集

標集對象은 서울市內 17個 區에 있는 老人學校 73個校(1983년 12월 현재) 중에서 학교의 특성과 지역별, 계층별 분포를 고려하여 11個 區에서 각 1個校씩 選定하였다.

資料收集期間은 1984年 10月 4日부터 12日까지이다. 調查方法은 質問紙를 통한 面接調查이다. 面接은 總 335명에 대해 실시되었으나 그 중에서 자료로서 적합하지 못한 13매의 質問紙는 제외하고 322부를 統計處理에 사용하였다.

3. 資料分析

① 社會的 不安全感과 衣服行動 變因의 分布를 把握하기 위하여 頻度와 百分率을 算出하였다.

② 衣服行動 變因 相互間의 內的 相關關係 및 社會的 不安全感과 衣服行動 變因과의 相關關係를 檢證하기 위하여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를 算出하였다.

③ 人口學的 變因(年齡, 階層, 教育, 宗教, 配偶者 有無)에 따른 衣服行動 變因의 差異를 檢證하기 위하여 一元分散分析을 하였다.

④ 測定道具의 信賴度를 檢證하기 위하여 社會的 不安全感 및 衣服行動 變因에 대한 全體問項 點數合計와 각 問項 點數와의 相關係數를 算出하였다.

V. 結果 및 論議

1. 標集對象의 一般的 性格

標集對象의 年齡은 대체로 65세 이상이며, 生活 정도는 中・下層이 주류를 이루고 教育水準은 高等學校 이상이 불과 12%이며, 나머지는 國民학교 졸업 또는 그 수준 이하이다. 宗教는 불교와 기

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配偶者 관계는 약 80%가 死別인 對象이었다.

〈표 1〉 標集對象의 人口學的 特性 (N: 322)

인구학적 변인	빈 도	백 분 율
연 령	60~64	79
	65~69	114
	70세 이상	129
계 총	상	51
	중	163
	하	108
교 육	무 학	93
	한문·서당	13
	국민학교	136
	중학교	39
	고등학교	29
	대학교	12
종 교	무 교	42
	불 교	162
	기독교	94
	천주교	24
배우자유무	동 거	67
	사 별	225

2. 調查 變因의 點數分布傾向

1) 社會的 不安全感 調查

〈표 2〉 社會的 不安全感 點數分布 (N: 322)

점수 범위	빈 도	백분율(%)	누적율(%)
21~25	8	2.5	2.5
16~20	56	17.4	19.9
11~15	92	28.6	48.4
6~10	122	37.9	86.3
1~5	44	13.6	100.0
합 계	322	100.0	
평 균		10.73	
표 준 편 차		4.76	

社會的 不安全感의 點數分布와 平均, 標準偏差는 〈표 2〉와 같다. 가능한 點數의 範圍는 0점에서 25점이다. 조사 결과 실제 點數의 分布는 1점에서

23점까지로 나타난다. 本研究에서 나타난 社會的不安感의 平均은 10.73이고 標準偏差는 4.76이다. 女高生을 대상으로 또한 최 혜선(1981)의 연구에서는 社會的不安感의 平均이 13.43이고 標集偏差 5.08로 나타났다. 또한 최 혜선(1981)의 研究에서는 中間點數 13점까지의 累積率이 조사 대상의 55.2%임에 반해 本研究에서는 社會的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老人은 30.7%로서 대체로 青少年에 비해 社會的不安은 낮은 편이다.

2) 衣服行動 調查

衣服行動 變因의 點數分布와 平均, 標準偏差는 <표 3>과 같다. 衣服行動 變因 중에서 衣服滿足度의 가능한 點數의 範圍는 12점에서 60점까지이다. 실제 點數分布는 23점에서 60점이었으며 36점에서 55점 사이에 79.5%가 집중되었다. 衣服滿足度의 平均은 45.38로 전반적으로 衣服滿足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社會的認定性과 心理的依存性의 가능한 點數範圍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다. 社會的認定性的 실제 點數分布는 10점에서 46점이었으며 21점에서 35점 사이에 73.9%가 집중되었다. 心理的依存性的 실제 點數分布는 11점에서 49점이었으며, 26점에서 40점 사이에 73.6%가 집중되었다.

社會的認定性보다 心理的依存性的 點數가 높게 나타난 것은 老年期女性들이 衣服을 선택, 착용할 때 타인의 인정을 얻거나 집단의 所屬感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衣服이 자신에게 주는 心理的 效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衣服選擇心理를 分析하여 年齡, 職業, 經濟的地位와 無關하게 同調性이 가장 중요한 要因이라는 Barr(1934)의 연구 결과와 相反된다.

<표 3> 衣服行動 變因 點數分布(N: 322)

의복행동 점수 범위 별도 백분율	의복 만족도		사회적인정성		심리적의존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56~60	30	9.3				
51~55	57	17.7				
46~50	87	27.0	1	0.3	7	2.2
41~45	70	21.7	4	1.2	25	7.7
36~40	42	13.0	24	7.5	87	27.0
31~35	18	5.6	61	18.9	85	26.4
26~30	15	4.6	93	28.9	65	20.2
21~25	3	0.9	84	26.1	34	10.5

16~20	0	0	38	11.8	15	4.6
11~15	0	0	16	5.0	4	1.2
6~10			1	0.3	0	0
1~5			0	0	0	0
합 계	322	100.0	322	100.0	322	100.0
평 균		45.38		26.58		32.41
표준편차		7.78		6.52		7.02

그 이유는 社會文化的 差異에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즉, 韓國社會의 경우 老人們이 자녀들과 동거하는 比率이 外國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따라서 家族, 親戚과의 接觸이 빈번하므로 상대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귈 필요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 다른 이유는 標集對象이 老人學校學生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즉, 老人學校에 다니는 老人們은 이미 소속된 집단이 있고 親交範圍도 비교적 넓기 때문에 상대적 社會的認定性을 덜 중요시한다고 추측된다.

3. 衣服行動 變因 相互間의 關係

假說 1. 衣服行動 變因(衣服滿足度, 社會的認定性, 心理的依存性)相互間에는 有意한 關係가 없을 것이다.

假說 1을 檢證하기 위하여 衣服行動 變因相互間의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를 算出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衣服行動 變因間의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N: 322)

구 분	의복 만족도	사회적 인정성
사회적 인정성	-0.3428***	
심리적 의존성	-0.1124*	0.5159***

***p < 0.001 *p < 0.05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衣服行動 變因相互間에는 有意한 관계가 있다.

社會的認定性과 衣服滿足度는 負의 相關關係 ($r = -0.3428$, $p < 0.001$)를 보이고 있다. 즉, 衣服의 選擇, 着用時에 集團에의 所屬感이나 타인들로부터 認定感을 얻기 위한 목적을 중요시할수록 衣服滿足度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青少年期에는 동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衣服은 心理的 不滿感을 誘發하는 要因이 되어 衣服不滿感이 증가된다는 Riley(1974)의 연구결과와 타

인들이 자신의 외적인 매력을 認定해 주기를 원하는 집단일수록 衣服不滿感이 높다는 김 미영 (1982)의 연구 결과를 支持한다. 따라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인 靑小年期뿐만이 아니라 情緒的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인 老年期에도 타인에게서 인정받을 수 없는 衣服은 衣服滿足度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心理的 依存性과 衣服滿足度는 부적인 相關關係 ($r = -0.1124$, $p < 0.05$)를 보이고 있다. 즉, 衣服을 選擇, 着用함에 있어서 衣服이 자아에 주는 幸福感, 自信感, 氣分轉換 등의 心理的 效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집단일수록 의복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의복이 주는 心理的 效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自我概念이 불확실하고 심신의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이므로 자신의 衣服에 대한 타인의 評價에 민감하게 되어 衣服을 自我表現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의 評價基準에 따르게 되므로 衣服滿足度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社會的 認定性과 心理的 依存性은 正의인 相關關係를 보이고 있다. 즉, 의복의 선택, 착용시에 집단에의 所屬感이나 타인으로부터의 認定感을 중요시하는 集團일수록 衣服이 自我에 주는 心理的 效果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衣服의 社會的 認定性과 心理的 依存性은 正의 相關關係를 유지하면서 相互共存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衣服에 대한 自我評價와 特定 着用者에 대한 타인의 평가는 두 측면에서 衣服의 중요성을 강조한 stone의 理論과 衣服이 社會的인 면으로 타인에게 주는 象徵的 역할과 個人的으로 着用者에게 주는 心理的 역할이 相互共存한다는 Flügel의 理論을 支持한다.

4. 社會的 不安感과 衣服行動과의 關係

假說 2. 社會的 不安感과 衣服行動 變因과는 有意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假說 2를 檢證하기 위해서 社會的 不安感과 衣服行動 變因과의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를 算出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社會的 不安感과 衣服行動 變因과는 有意한 關係가 있다.

社會的 不安感과 衣服滿足度는 負의인 相關關係 ($r = -0.3817$, $p < 0.001$)를 보이고 있다. 즉, 社

〈표 5〉 社會的 不安感과 衣服行動 變因과의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N: 322)

구 分	사 회 적 불 안 감
의 복 만 족 도	-0.3817 ***
사 회 적 인 정 성	0.3498 ***
심 리 적 의 존 성	0.2040 ***

*** $p < 0.001$

會的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일록 衣服滿足度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社會的으로 불안한 사람은 對人關係에 있어서 自信感을 갖지 못하고, 自身의 才能이나 能力에 대해 劣等意識을 가진다. 따라서 精神的이고 內的인 가치보다는 物質的이고 外的인 價值를 추구하게 되어 社會的相互作用에 있어서 외적인 물질로서 가장 중요한 役割을 하는 衣服에 두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 價值基準이 他人指向의이기 때문에 衣服滿足度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社會的 不安感과 社會的 認定性 사이에 正의인 相關關係 ($r = 0.3498$, $p < 0.001$)를 보이고 있다. 즉, 社會的으로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衣服의 選擇, 着用時에 集團의 所屬感과 타인의 認定感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결과는 個性的인 衣服을 着用하는 사람은 사회나 집단의 壓力を 극복하기 위하여 心理的 安定性이 높으며 個人的 確信에 대해 강한 신념을 지닌 반면 社會的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同調性이 높다는 Horn의 理論을 支持한다.

社會的 不安感과 心理的 依存性과는 正의인 相關關係 ($r = 0.2040$, $p < 0.001$)를 보이고 있다. 즉, 社會的으로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衣服을 選擇, 着用함에 있어서 衣服이 자아에 주는 幸福感, 自信感, 氣分轉換 등의 心理的 效果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한 感情을 가진 집단이 衣服의 心理的 效果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Ryan과 Humphrey의 理論을 支持한다.

이상의 결과로 假說 2는 棄却되었다. 그러므로 社會的 不安感과 衣服行動 變因과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다.

5. 人口學的 變因에 따른 衣服行動 變因의 差異

人口學的 變因에 따른 衣服行動 變因의 差異를

檢證하기 위하여 一元分散分析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假說 3. 衣服滿足度는 人口學的 變因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假說 3을 검증하면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衣服滿足度는 階層과 教育水準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있으나 年齡, 宗教, 配偶者 有無에 따라서는 有意한 差異가 없다.

衣服滿足度는 階層에 따라서 顯著한 差異가 있다. ($F\text{-ratio} = 110.855, p < 0.001$) 上

上流層은 충분한 衣服費를 지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지만 下流層은 生活必需品 以上의 것에 지출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衣服購入이 어렵게 되어 衣服滿足度가 낮아진다고 推測된다. 이러한 결과는 社會經濟的 地位가 높을수록 자신의 外貌에 대한 평가도 높았다는 Hambleton, Roach, Ehle(1972)의 연구, 社會經濟的 地位가 높을수록 衣服滿足感이 낮다는 Vener(1965)의 연구 결과를 支持한다.

衣服滿足度는 教育水準에 따라서 有意한 差異가 있다. ($F\text{-ratio} = 8.656, p < 0.001$) 教育水準別 衣服滿足度의 平均을 비교하면 教育水準이 높은 集團일수록 衣服滿足度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成人男子를 대상으로 한 이 경손

(1979)의 연구에서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衣生活에 만족한다는 결과와 中年期 女性을 대상으로 한 이 영윤(1981)의 연구에서 衣服滿足度는 教育水準과 正의인 相關關係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衣服滿足度가 높아지는 현상은 年齡이나 性別과 無關하다고 할 수 있다.

假說 4. 社會的 認定性은 人口學的 變因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假說 4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社會的 認定性은 階層, 教育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있으나 年齡, 宗教, 配偶者 有無에 따라서는 有意한 차이가 없다.

社會的 認定性은 階層에 따라서 有意한 차이가 있다($F\text{-ratio} = 24.043, p < 0.001$) 階層別 社會的 認定性의 平均을 비교하면 階層이 낮을수록 衣服의 選擇, 着用時에 집단에의 所屬感이나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이 더 중요시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老年期 女性 特有의 生活環境에서 기인된다고 推測된다. 韓國老人의 生活과 意識構造에 관한 實態調查³⁴⁾ 결과를 종합하면 여자 노인의 경우 계층이 낮을수록 疏外感을 자주 느끼고 姑婦간의 갈등이 심하며 餘暇時間은 가족과의 대화보다 老人停이나 老人學校에서 消費한다.

<표 6> 人口學的 變因에 따른 衣服行動 變因의 差異 : 一元散分析 (N : 322)

인구학적 변인	연 령			계 총			교 육			종 교			배우자 유무			
	60~ 64	65~ 69	70세 이상	상	중	하	무학 학교	국민 학교	중학교 이상	무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동거	사별	
의복 행동 변인	M. S.D. F값	79	114	129	51	163	108	93	149	80	42	162	94	24	67	225
의 복 만 족 도	평 균	44.5	45.2	46.0	51.8	47.8	38.6	43.3	45.1	48.1	44.3	45.7	45.9	42.9	46.0	45.2
	표준편차	8.10	8.13	7.25	5.33	5.32	7.14	8.44	7.27	7.18	8.62	7.57	7.74	7.69	7.99	7.73
	F 값	0.927			110.855 ***			8.656 ***			1.316			0.585		
사 회 적 안 정 성	평 균	26.4	26.5	26.7	21.8	26.4	29.0	28.4	26.9	23.7	27.4	26.4	26.6	25.8	25.7	26.9
	표준편차	5.86	6.73	6.75	6.00	6.44	5.58	6.29	6.44	6.02	7.55	6.53	5.86	7.20	6.98	6.34
	F 값	0.041			24.043 ***			12.630 ***			0.389			3.345		
심 리 적 의 존 성	평 균	31.8	32.5	32.6	32.0	32.1	33.0	34.4	31.8	31.1	32.4	32.4	33.3	28.7	31.4	32.6
	표준편차	7.44	6.41	7.29	6.79	7.30	6.70	7.06	6.62	7.26	6.91	6.96	6.12	9.72	7.00	7.01
	F 값	0.349			0.750			5.941 **			2.744 *			1.777		

*** $p < 0.001$, ** $p < 0.01$, * $p < 0.05$

34) 朴在侃, 朴春植(1983) “韓國老人의 生活과 意識構造에 관한 實態調查”, (서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pp. 9 ~ 13

그러므로 계층이 낮을수록 疎外感을 극복하고 餘暇時間은 보내기 위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므로 社會的 認定性을 더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社會的 認定性은 教育水準에 따라서 有意한 차이가 있다(F -ratio = 12.630, $p < 0.001$) 教育水準別 社會的 認定性의 平均을 비교하면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衣服의 選擇, 着用時 集團에의 所屬感이나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을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假說 5. 心理的 依存性은 人口學的 變因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없을 것이다.

假說 5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心理的 依存性은 教育, 宗教에 따라 有意한 差異가 있으나 年齡, 階層, 配偶者 有無에 따라서는 有意한 差異가 없다.

心理的 依存性은 教育水準에 따라서 有意한 차이가 있다(F -ratio = 5.941, $p < 0.01$) 教育水準別 心理的 依存性의 平均을 비교하면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衣服의 選擇, 着用時에 衣服이 자아에 주는 幸福感, 自信感, 氣分轉換 등의 心理的 效果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心理的 依存性은 宗教에 따라서 有意한 차이가 있다(F -ratio = 2.744, $p < 0.05$) 宗教別 心理的 依存性의 平均을 비교하면 천주교를 믿는 집단은 종교가 없거나 기타 다른 종교를 믿는 集團에 비하여 衣服이 자아에 주는 心理的 效果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음을 알 수 있다.

以上의 分散分析 결과, 假說 3,4,5는 부분적으로만 棄却되었다. 人口學的 變因 중 年齡과 配偶者 有無는 衣服行動 變因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衣服行動 變因을 衣服滿足度, 社會的 認定性, 心理的 依存性 3 가지에 局生시켰으므로 좀 더 다양한 衣服行動 變因을 검토해보면 年齡과 配偶者 有無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標集對象이 서울에 居主하는 老年期 女性 중에서 老人學校 學生만으로 制限되었고, 測定道具가 우리 나라의 標準化된 것이 아니라는 限界點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擴大解釋할 수 없음을 밝힌다.

VII. 結論 및 提言

본 연구에서는 老年期 女性을 대상으로 衣服行動 變因 相互間의 關係, 社會的 不安感과 衣服行動과의 관계를 把握하고 人口學的 變因에 따른 衣服行動 變因의 結果를 土臺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老年期 女性들은 전반적으로 衣服滿足度가 높으며, 衣服의 選擇, 着用時에 社會的 認定性보다는 心理的 依存性을 중요시한다.

2. 衣服行動 相互間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다. 즉, 社會的 認定性과 心理的 依存性을 중요시할수록 衣服滿足度가 낮으며, 社會的 認定性을 중요시하는 集團은 心理的 依存性도 중요시한다.

3. 社會的 不安感과 衣服行動 變因間에는 有意한 相關關係가 있다. 즉, 社會的 不安感이 낮을수록 衣服滿足度가 높으며, 社會的 不安感이 높을수록 社會的 認定性과 心理的 依存性을 중요시한다.

4. 衣服滿足度는 人口學的 變因 中 生活정도, 교육수준에 따라 有意한 차이가 있다. 생활정도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衣服滿足度가 높다.

5. 社會的 認定性은 人口學的 變因 中 생활정도와 教育水準에 따라 有意한 차이가 있다. 생활정도와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社會的 認定性을 중요시한다.

6. 心理的 依存性은 人口學的 變因 中 教育水準과 宗教에 따라 有意한 차이가 있다. 天主教인이 아니고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心理的 依存性을 중요시한다. 老年期 女性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가 衣服行動 研究에 基礎資料로서 이용되고 老人們의 바람직한 衣生活方向 提示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後續研究가 이루어지기를 期待한다.

1. 性別, 地域別 比較가 가능하도록 研究對象을 男子老人과 農村老人으로 擴大하고, 研究內容의 信賴度를 높이기 위해 老人學校 學生이 아닌 一般老人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老人 衣服行動에 대한 폭넓은 情報를 提供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사용된 衣服滿足度, 社會的 認定性, 管理性, 心理的 依存性 이외에 禮儀性, 異美性, 興味性, 注意集中性, 身分象徵性, 流行性 등 다양한 衣服行動 變因을 포함시킨다.

参考文献

- 高永復(1980), ‘現代社會心理學’, 서울 : 법문사.
- 朴在侃, 林春植(1983), ‘韓國老人의 生活과 實態調查’, 서울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양 춘(1984), ‘青小年問題와 老人問題’, 서울 : 정음사.
- 尹種周(1983), “우리 나라 老人問題에 대한 人口學的 考察” ‘現代社會와 老人福祉’, 서울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崔信德(1982), “平生教育一環으로서의 老人教育” ‘창립 15주년 기념 학술발표’,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 혜선(1981), ‘衣服行動과 社會的 安全感－不安感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市內 女高生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Aiken, L.R.(1963), “The Relationship to Selected Measures of Personality in Undergraduate Wom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9, No. 1, pp. 119 ~ 128
- Bartley, L. and Warden, J.(1962), “Clothing Preferences of Women 65 and Older,”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4, No. 8, pp. 716 ~ 717.
- Costantakos, C. M.(1977), “The Family and Aging,” *Journal of Home Economic*, Vol. 69, No. 10, pp. 24 ~ 25.
- Creekmore, A. M.(1966),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 783, Michigan State University.
- Davis, R. W.(1962), “The Relationship of Social Preferability to Self — concept in an Aged Popula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17, pp. 431 ~ 436
- Drake, F. M. and Ford, I. M.(1979),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7, No. 5, pp. 283 ~ 291.
- Ebeling, M. and Rosencranz, M. L.(1961) “Social and Personal Aspects of Clothing for Older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3, No. 6, pp. 464 ~ 465.
- Hamilton, J. and Warden, J.(1966) “The Student's Role in a High School Community and His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8, No. 10, pp. 789 ~ 791.
- Harms, E.(1938), “The Psychology of Cloth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4, pp. 239 ~ 250.
- Humphrey, C., Klaasen, M. and Creekmore, A. M.(1971), “Clothing and Self – 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3, No. 4, pp. 246 ~ 250.
- Kelly, E. A., Daigle, C. W., La Fleur, R. S. and Wilson, L. J. (1974)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2, No. 3, pp. 167 – 175.
- Lapitsky, M.(1961),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and In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Miller, M. S. and Ryan, M. S.(1960) “Mothers and Daughters Select School Dresse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2, No. 6, pp. 455 ~ 456.
- Phipps, C. A.(1977), “Clothing Design for Handicapped Elderly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9, No. 10, pp. 21 ~ 23.

- Ryan, M. S(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Smathers, D. G. and Horridge, P. E(1979), "The Effects of Physical Changes on Clothing Preferences of Elderly Women,"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9, No. 3, pp. 273 ~ 277.
- Tate, M. T. and Glisson, O.(1967), *Family Clothing*,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Inc.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Clothing Satisfaction, Social approval, Psychological dependence, and Social security-insecurity an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of clothing behaviors by th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socio-economics status, education, religion, and material status.

Clothing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Rim's Questionnaire(1974) modified and supplemented for this study.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approval and Psychological dependence, the Clothing Interest Inventory developed by Creekmore(1971) was adapted for this study. The measurement for the Social security-insecurity was adapted from Lapitsky's (1961) Social Security Inventory.

Data were collected from 322 purposively selected elderly women over sixty dwelling in Seoul by means of interviews. For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distribution, one-way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Clothing satisfaction, Social approval, and Psychological dependence. Negati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Clothing satisfaction and Social approval and between Clothing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dependence.
2. There was negativ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curity-insecurity and Clothing satisfaction, while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Social security-insecurity and Social approval, and between Social security-insecurity and Psychological dependence.
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loth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and education.
4.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approval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and education.
5.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Psychological dependence according to education and religion.